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이유

(막3:20-30)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이 소문이 되어서 두루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의도하는 바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 해준다고 하는 역설적인 확증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마땅히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영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한 번 살펴봅니다.
항간에 '미친 여자 시리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억도 없으면서 강남에 가서 사는 여자.
20억도 없으면서 자식을 유학 보내는 여자.
30억이 있으면서 손자 봐주러 다니는 여자.
이게 다 미친 여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산에 있는 태종대가 대학이라고 우기는 여자, 안중근 의사가 내과의사라고 우기는 여자.

그리고 또 '웃기는 남자'가 있어요, 미친 남자랑 비슷한 '웃기는 남자'
50대에 사업하겠다고 대출받는 남자.
60대에 이민 가겠다고 영어공부 하는 남자.
70대에 골프 잘 치겠다고 레슨 받는 남자.
80대에 보약 지어먹는 남자.
90대에 몸이 이곳저곳 찌뿌둥하다고 종합검진 받는 남자.
이런 사람들이 미친 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친 상태를 넘어서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까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게 되는 증거가 그들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이유 시리즈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만 찾아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1장에서 3장까지.

대충 찾아봐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사실을 파헤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서른 살 밖에 안 된 목수의 아들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한 얘기는 이웃집 편의점 하는 박씨 아저씨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나타나서 스피커 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미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도 그 당시 유대사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분이시고 죄인을 멸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니 미친 사람인 겁니다.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내일 고쳐도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사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쳤어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미친 사람이지만, 고친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이 지폈다, 귀신의 왕이 지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리가 없다, 고쳐도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시로 귀신과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는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오면 피해 다니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피해 가시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마을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을 불

러 모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합니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동네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제자라면 가능한 한 탁월한 자들을 뽑는 것이 스승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한 한 못난 자들을 뽑은 거고 죄인까지 섞여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뽑은 거예요.
이 오합지졸,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생이다' 하고 다닙니다.
말도 아닌 열두 제자를 뽑아가지고 '내가 선생이다' 하고 앞서서 다닙니다.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저러한 행동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열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그 이유의 시리즈를 열거해 봤어요, 당시 사회로 들어가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미친 분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늦은 밤 시간이라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모두가 다 얼굴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자는 사람,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여중생이 한 명 끼어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마~악 문자를 날리면서 킥킥대고 하다가 기어코 참지 못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킥킥대면서 뭐라고뭐라고 재잘재잘 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이 투명해서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게 없지만, 스마트폰이 안 보이는 가운데 전화통화 하는 것처럼 손을 갖다 대고 재잘거리고 웃고 떠들고 까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보일 때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무슨 얘기가 저렇게 재미있을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안 보인다면 같이 따라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혀를 차지요, '쯧쯧… 저 어린애가 미쳤구먼!'
혼자서 깔깔대고 웃고 까불고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말은 '미쳤구나!'

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미쳐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통해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와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지시받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해서 대화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심각해하시는 모든 이유가 이 대화 속에서 천국이 가까워 왔고 그 천국에 보좌를 펼치시고 앉아계시는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천국과 통해 있는 상태로부터 듣는 대로 움직여 가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언행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핸드폰이 안 보이는데 혼자서 깔깔대고 웃고 하는 여중생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쓰는 무선이어폰이 나왔나 보던데, 무선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은 가방에 넣고 걸어가면서 혼자 얘기합니다,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스마트폰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에 미쳤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보고 계시고, 천국을 듣고 계시고, 천국을 느끼고 계시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통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해 전혀 비전도 없고,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미치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천국과 통하게 하는 스마트폰이 뭡니까?
그 자리에 없는 친구와 통화하도록 해주는 스마트폰 같은, 이 지상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통화하게 하는 스마트폰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몸, 이 육체의 5감관을 통해서 세상을 접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직장생활 하고, 또 자연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5감관이 있으므로 우리 마음에 재료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천국을 그렇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5감관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보시면서 내 마음에 전달해주십니다, 육체의 눈이 보면서 내 마음에 전달해주는 것처럼.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는, 5감관으로는 잡을 수 없는 하나님나라 천국이 지금 느껴지고 보여 지고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제 눈알이 설교 현장에 있지 않고 바닷가에 있다고 칩시다.
바닷가에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눈이 바닷가에서 큰 풍랑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물보라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내 눈이 깜깜한 방에 들어갔다면, 내 몸이 지금 밝은 곳에 있지만 괜히 움직임이 더듬더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내 눈이 바닷가에 가있다고 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피하는 거지?'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미쳤다고 보이는 겁니다.
천국을 일상화하고 계시고 천국이 지금 통해 있는 상태에서 살고계신 예수님의 언행이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으로 보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천국이 감지될 수 있고 천국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괜히 이론적으로 말로만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몸을 통하여 이 세상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천국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거꾸로 한번 해봐요.
천국이 안 보이는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천국이 이 세상과 붙어있는 걸 알면서 천국을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벌겠다며 아우성치는 것, 미친 것 중에 아이들 말로 왕짱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살지 못해 안달복달 하는 것, 최고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여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겠다는 남자, 어지간히 미친 사람인 겁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에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처럼 미친 남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행복해진다는 겁니까?
돈 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처럼 미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식 잘 키워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것 굉장히 미친 겁니다.

천국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이 지불되면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아이도 키우는 거죠.
아이 키워서 보람을 느끼겠다는 이 미친 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천국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번다는 것, 이것처럼 미친 짓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미친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명품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친 생각이에요, 미친 사람의 증거가 그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이게 미친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보고 귀신들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귀신들린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름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 값 오른 것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 몰고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름 값이 1리터에 만원이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가격이 내렸다 좋아하고 올랐다고 슬퍼할 것 없어요.
내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1리터에 만원이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1리터에 오백 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차를 몰고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미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일전한푼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5백 억짜리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겠지요?
'아니, 돈도 한푼도 없는 주제에 5백 억짜리 일을 할 수 있대,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미쳤어요.
천 억짜리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왜 벌겠습니까?
어차피 뜻이 아닌 것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차피 뜻이면 돈이 없어도 이루어지는데 왜 돈을 법니까?
그러니 돈 벌려고 하는 게 제일 미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겠다는 게 제일 미친 거예요.
아니, 왜 오래 살지 못해 안달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하! 이거 미친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정신이 버쩍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이유,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삶의 패턴, 다 미친 겁니다.
서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나보고 미쳤다고 하고, 나도 저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보여야 진짜 신앙인의 자리에 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이유, 그들에게는 천국이 '지금 여기서' 느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천국과 통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들의 언행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 천국이 지금 여기서 일상화 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